

# 國際에너지情勢 변화와 소비국의 대응

비외른 바스

〈IEA 석유시장동향분석실장〉

이 자료는 지난 해 12월 5일 韓國動力資源研究所가 주최한 國際石油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編輯者註)

## 경제적인 相互依存

지난 10년 동안에 일어났던 에너지波動의 중대한 결과의 하나는 에너지문제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경제적·정치적 變數로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에너지소비국과 생산국들은 에너지 문제가 모든 국가들을 경제적·금융상의, 그리고 정치적인 相互依存이라는 組織網(network)에 얽어매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호관심 때문에 세계에너지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要因은 에너지에 관한 情報가 적절하게 교환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韓國動力資源研究所가 주도적으로 국제석유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에너지정보교환을 위한 시기에 알맞고, 훌륭하고 적절한 조치이다.

本人이 근무하고 있는 IEA는 西歐, 北美 및 太平洋지역의 선진공업국들로 구성된 회원국들의 에너지문제와 에너지정책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IEA회원국들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공업국, 에너지생산국과 에너지소비국間에는 상호의존관계와 전반적인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要因이 있으므로 말미

암아 우리는 장래에너지의 안정확보문제, 즉 앞으로는 에너지로 인해서 선진공업국과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이 저해받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함께 다루게 된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와 경제성장간의 잠재적인 相衡을 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체적으로 말해서 경제성장은 에너지소비의 증가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현재 세계에너지市場의 공급과잉상태를 反轉시킬 것이다. 결과적으로 石油가격의 급격한 변화에 취약한 석유市場은 70년대와 같이 팽박해 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될 경우 石油를 수입하는 開發途上國들은 특히 곤란을 겪게 될 것이며, 선진공업국들도 그들의 경제성장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石油생산국들 역시 장래의 價格쇼크를 바라지 않고 있다. 지난 수년동안의 석유정세가 분명히 말해 주듯이 급격한 석유가격의 인상은 소비국들의 經濟가 高油價에 적응하기 시작함에 따라 수개월 또는 수년이내에 석유수요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高油價에 대한 적응과정은 석유수입국들의 경우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다. 일부 신흥공업국과 선진공업국에서는 지난 수년동안의 어려운 적응과정을 거쳐 에너지소비구조가 크게 재편되었다.

경제개발에 대한 염원과 에너지공급의 제약이 상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야 할 여러가지의 努力에 대하여 연구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상충은 잠재적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다.

### 에너지消費의 증가

여기에서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와의 관계, 더 정확하게 말해서 경제성장률과 에너지소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1973년 이전 OECD의 선진공업국들은 대략 1%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약 1%의 에너지를 소비했다. 물론 그 당시 에너지가격은 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73년 이후, 그리고 특히 79년 이후 에너지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에너지節約을 추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OECD국들의 경제성장은 에너지소비보다 높아졌고, 석유소비보다는 훨씬 더 높아졌다.

그러면 여기에서 선진공업국가들의 에너지소비와 경제성장간의 역사적인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총에너지 및 석유소비는 에너지가격이 매우 안정되어 있었던 60~70년 기간에는 경제성장과 평행하게 증가하였다.

-73년 石油價格쇼크 이후에는 에너지, 특히 석유소비는 이전보다 훨씬 증가속도가 둔화되었다. 소비증가는 絶對量에 있어서도 크게 둔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 비해서도 둔화되었다.

-마지막으로 79~80년도 석유가격파동은 OECD국들의 중요적응과정을 촉진시켰다. OECD국들의 경제가 高에너지價格에 적응함에 따라 에너지소비증가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는 무너졌다.

이러한 단계에서 에너지節約의 의미를 검토해 보는 것도 가치있는 일이다. 에너지節約은 車의 속력을 낮춘다든지 빌딩의 온도를 낮추는 것과 같은 아주 단순한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에너지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는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보다 영구적이고 가격이 하락해도 근본적으로 다시 소비가 증가되지 않는 에너지節約으로는 낡고 효율성이 낮은 에너지이용설비를 값비싼 에너지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보다 최신의 설비로 代替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결과적으로 모든 생산시설

이 현대화될 때까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가격의 극적인 변화는 낡은 생산시설의 대체를 가속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급격한 경제성장도와 이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

近年에 와서는 알루미늄이나 石油化學과 같은 에너지집약산업이 에너지가 빈약한 나라에서 에너지가 풍부한 나라로 移動됨에 따라 OECD국들의 에너지소비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결국 OECD국에서는 原子力과 石炭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석유의존도가 낮아져 보다 균형있는 에너지소비구조로 이행되었다.

이와 유사한 관계가 開發國에도 적용된다. 開發國에 있어서 에너지소비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는 비록 에너지節約으로 약화되는 한편 경제는 새로운 에너지價格體系에 적응하고 있지만, 에너지소비와 경제성장률간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 人口 증가와 에너지수요

開發國에 있어서는 人口문제와 아울러 農業國에서 工業國으로 이행되고 있는 나라의 경우 인프라(infrastructure)의 수요때문에 에너지탄성치를 낮추는 것이 OECD국보다 훨씬 힘들다. 그러나 어느 의미에서는 에너지소비의 증가는 단지 경제성장의 부산물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너지소비의 증가는 경제성장의 필요불가결한 요인이다. 本人은 이 점에 대해서 잠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경제성장이란 편의상 인구증가와 個人當 생산량의 증가 혹은 생산성의 증가라고 하는 두가지 구성요인의 합계로 간주될 수 있다.

人口增加와 에너지수요와의 관계는 특히 경제가 에너지가격의 대폭적인 상승에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人口와 에너지소비는 빠르게 증가한다. 즉 人口가 늘면 취사용 연료, 운송수단등이 더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체적 안락이 감소된다.

한편 에너지는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에너지는 勞動力을 대치 또는 증강시키기 때문에 1人當 생산량을 증대시키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요인이다. 非人間에너지의 1人當 사용량의 증가는 開發國에 있어서 국민들의 물질적인 福利를 증진시키는데 거의 필수불가결의 요인인지도 모른다. 이

와 같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에너지는 경제발전을 촉진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장래에 에너지 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짐으로써 開發國의 경제적인 역원이 에너지위기로 말미암아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일부 開發國들의 에너지소비, 人口 및 경제성장을 분석해 보면, 이들 要因 사이에 존재하는 관련성을 보다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

즉, -에너지소비와 인구증가의 관계는 非商業에너지사용의 증가와 인구증가의 협소한 관계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다. 인구와 非商業에너지사용의 증가율은 유사한 경향이 있다. 효율성을 증가시켜 이러한 관계를 변경시킬 여지는 항상 있지만, 家口數가 증가하면 에너지소비가 늘어난다.

- 1 人당 商業에너지사용과 석유사용의 증가는 1 人당 경제성장과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가 엄밀한 것은 아닐지라도, 1 人당 경제성장의 증가는 1 人당 에너지소비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 같다.

### 과도한 石油依存度의 위험

현재 잠재공급량이 수요를 크게 웃돌고 있는 약세의 石油市場상황에서 과연 장래에너지위기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질문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本人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신중한 답변이며, 앞으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이 分析에서는 석유만 다루기로 한다. 물론 기타 연료도 중요하다. 그러나 금세기 동안에는 석유만이 전세계의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공급부족이나 가격변동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연료이다.

현재 전세계 石油생산능력은 현재의 소비수준을 약 1,000만b/d정도 초과하고 있다. 세계 석유수요 특히 선진공업국들의 석유수요는 70년대의 석유가격쇼크와 80년대초의 경제불황으로 인해 매우 침체되어 있다. 그러나 세계 석유수요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다시 증가하여 세계 석유시장의 잉여분을

흡수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경제불황과 석유가격의 급격한 변화는 過去事이기를 바라고 있다. OECD國과 新興工業國들의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약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OECD와 같은 선진공업국에서는 생산시설이 高油價에 적응해 가고 있는 중이며 이는 에너지수요가 전반적인 경제성장보다 더 완만하게 증가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OECD의 石油소비는 天然가스, 석탄 또는 原子力과 같은 에너지源의 사용이 상대적인 가격의 利點이나 政策的인 이유로 인해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총에너지소비보다 훨씬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OECD國의 석유수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OECD의 석유수요는 80년대말에 가서는 대략 34백만 b/d의 83년 수준보다 약간 많은 34~36백만b/d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다. 이 34백만b/d는 83년 자유세계 총석유소비량의 약 75%를 차지하는 量이다. 이와 같이 현재 석유시장의 3/4을 차지하고 있는 OECD國에 있어서 석유수요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다.

- OECD國들이 이미 어느 정도 충분히 공업화가 되었다.

- 에너지의 효율성제고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며, - 代替연료의 이용으로 석유가 일부 대체된다는 것이다.

이제 開發國들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開發國들은 83년에 세계 석유소비량의 약 1/4인 10.5백만b/d를 소비했다. 이들의 소비량은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이 복합적으로 연료소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開發國들의 에너지 소비는 2000년에는 83년 수준의 2배 정도로 증가할 것이다.

開發國들의 연료대체와 에너지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점이 많다. 또한 投資를 결정할 때에는 석유사용설비의 높은 운영비는 非石油 연료를 사용하는 설비의 높은 자본비용과 인프라

(Infrastructure) 비용과 비교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開發國들의 석유소비는 대략 현재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소비량의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보는 것이 신중한 추정이다. 이는 석유소비량이 7~9 백만b/d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석유의 공급측면을 보면, OECD의 공급량은 2~3 백만b/d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非OPEC開發國들의 생산량은 2~4 백만b/d 증가할 것이다. 이는 OECD와 非OPEC開發國들이 83년의 대략 20백만b/d에 비해 2000년에는 28~30백만b/d의 석유를 수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10백만b/d 수준에 있는 파잉생산능력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 OPEC석유의 수요

이것은 매우 中途的인 시나리오라고 本人은 생각하고 있다. 이는 OPEC원유 및 NGL의 수요가 2000년에 가서 약 29백만b/d가 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석유공급과 수요에 대한 약간 더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의하면, OPEC 석유의 수요는 2000년에 약 25백만b/d가 될 것이다. 이것은 별로 놀라운 것은 아니지만, 세계석유시장이 현재의 공급과잉상태에서 심각한 팽박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적이지는 하나, 약간 덜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1995년경 OPEC석유의 수요는 30백만b/d가 될 것이다.

本人이 추정 한 시나리오는 아주 놀라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것은 석유생산에 대한 합리적이고 달성가능한 추정치에 근거한 것이며, OECD國들의 석유소비는 거의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開發國들의 석유소비는 약 연3.7% 증가하나 이는 종전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데 충분치 않은 량이다. 中途國들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고도의 경제성장은 에너지소비의 증가가 수반될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경제성장이 낮을 경우보다 석유시장이 더 팽박해질 것이다.

모든 점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수년동안은 石油의 실질가격은 하락하고 석유시장은 안정될 것 같다. 이러한 가격예상과 함께 OECD國과 開發國

들의 경제회복은 에너지절약 조치를 약화시키고 代替에너지源의 개발을 둔화시킴으로써 1990년대 석유시장을 약화시키게 될지도 모른다.

석유시장의 팽박은 油價의 점진적인 상승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석유소비국들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산유국들은 이익을 볼 것이 분명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석유시장의 팽박으로 油價폭등의 여건이 조성될지도 모른다는 위험성이다.

석유시장의 팽박은 비록 소규모의 공급과잉이라도 대폭적인 유가상승을 신속하게 유발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의 안정확보문제(energy security)는 당분간 休止상태에 있을 지라도 우리의 당면문제이다. 우리는 현재의 에너지정세로 인해 1990년대에 다가올 에너지의 안정확보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속적인 노력에 怠慢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 70년대 석유공급의 패턴

다음으로 1970년대에 일어났던 석유공급의존의 패턴과 앞서 설명한 석유수요 시나리오에 입각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960년의 非OPEC석유생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OPEC석유, 특히 中東지역의 OPEC 석유에 대한 의존도는 급격히 증가했다.

-1960년에는 대부분의 석유생산이 OPEC 회원국 이외의 국가에서 이루어졌다.

-1965년에는 OPEC의 생산량은 非OPEC 생산량을 상회하였다.

-1970년에는 中東지역 OPEC國들의 생산량이 非OPEC생산량을 상회하였다. 70년대에 中東지역은 절대물량에 있어서 그리고 他지역에 비교해서 모두 매우 높은 생산수준을 기록했다.

-70년대에 中東지역 석유에 대한 이러한 높은 의존도 때문에 세계는 同지역으로부터의 석유공급 중단에 매우 취약했다. 이러한 공급과동으로 인해 석유가격이 갑자기 대폭적으로 상승했다.

-석유생산계획에 따르면 세계는 90년대에 다시 中東석유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미 설명한 中途的인 시나리오에서도 OPEC

는 90년대 중반까지 세계석유생산량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90년대 말에 가서 中東지역 OPEC의 생산량은 다시 70년대의 최고수준에 육박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진퇴양난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가 매우 염원하고 있는 고도의 경제성장은 세계 석유시장을 팽박하게 만들지 모르며, 이렇게 될 경우 우리는 모두 또 다른 석유위기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진퇴양난에 대한 해답이 석유를 절약하기 위해 開途國들의 경제성장을 제한하는 것이어서는 않된다는 것이 명백하다. 또한 앞으로 다가오는 90년대에 開途國들의 염원이 좌절되도록 장래석유가격의 급격한 변화를 허용해서는 않된다는 것도 명백하다.

### 장래의 적절한 공급량

우리는 그 대신 제3의 석유위기를 유발시키지 않고 開途國들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에너지 공급량을 확보하는데 우리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첫째, 선진공업국과 開途國들의 보다 합리적인 에너지사용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재 세계석유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安堵感에 빠지도록 해서는 않된다. 소비국들은 석유의존도를 감축, 국내에너지 소비구조를 개편하려는 장기적인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이것은 에너지의 효율성제고와 연료대체에 대한 재정 및 금융상의 인센티브를 계속 주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석유제품의 가격은 他연료로의 석유대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계석유시장의 실제가격을 반영하도록 책정되어야 한다.

소비국들은 계속해서 石油火力發電을 감축시켜야 하며 水力, 原子力, 석탄 및 天然가스로 가능한 한 최대로 대체시켜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5차 5개년계획에 의거 發電부문의 석유사용을 80%에서 20%로 낮추려는 韓國의 노력은 올바른 조치이다. 그러나 發電부문 이외의 부분에서 석유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신중한 注意를 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들은 수명이 긴 에너지使用設備에 대한 투자가 석유시장의 팽박이라는 장기적인 현실을 반영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에서 얻어지는 잠재적 이득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OECD國들의 총에너지소비중 石油의 비중은 50% 이상에서 44%정도 감소되어 왔으며, 동시에 경제성장에 대한 총에너지소비도 과거 10년동안 크게 낮아졌다.

모든 국가들은 최근의 석유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에너지절약과 연료대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모든 국가들은 非석유에너지의 생산과 사용기술의 개발을 둘러싼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本人은 비교적 풍부한 석탄과 原子力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고갈되고 있는 석유를 대체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는 정치적이고 환경적인 여러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하에서 잠재적인 水力이 모두 개발된 후에는 석탄과 原子力만이 의심의 여지없이 電力과 일부 산업부분에서 석유의 가장 현실적인 대체연료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일부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技術은 酸性雨와 원자력 폐기물 처리와 같은 석탄과 原子力의 사용에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으로 本人은 확신하고 있다.

天然가스의 사용증가, 타르 샌드(tar sand)와 오일 셰일(oil shale)의 개발, 北極天然가스의 개발과 운송등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인도네시아로부터 LNG를 수입하기로 한 韓國의 결정은 실용적인 석유대체 방안이 될 것이며,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기도 하다.

이들 資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리드타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투자는 하고 부적절한 투자는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 開途國의 석유개발

마지막으로, 開途國 특히 石油을 수입하고 있는 開途國들의 국내에너지源을 탐사, 개발, 이용하기 위해 많은 協助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물론 탐사작업은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기술이 필요하다는 어려움도 있다.

開途國들은 조건이 안전할 것이라는 신뢰의 분위기에서 석유회사들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아마도 여러가지 규모의 가능발전량에 대해서 상호혜택이 보장되도록 진취적인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가장 잘 이루어지게 된다.

資源開發은 일단 발전되면 기술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많은 금융상의 문제가 제기된다. 대부분의 開發國들은 그들의 에너지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차관을 도입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차관도입은 外債가 많은 국가의 경우 특히 힘들 것이다.

이들 문제점들은 國營 및 민간석유회사의 정책 결정자, 은행, 원조기관과 開發國들과 가진 협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開發國들은 일반적으로 과거 수년동안 모든 부문에 대해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려는 움직임에 고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開發國들의 현재 수준의 석유부문투자는 세계석유 공급상황을 크게 변동시키지도 않고 현재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開發國들의 경제개발에 대한 에너지의 제약을 해소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진정한 우려도 있었다.

만일 국제적인 資本과 숙련된 기술이 開發國들의 석유자원을 탐사·개발하려는 중대한 노력이 동원된다면, 기본적인 상호신뢰와 존경심에 의거한 실용적인 접근방법이 많은 성공적인 개발사업의 경우와 같이 우세하게 됨으로써 開發國, 은행 및 석유회사들의 다양한 利害關係가 순조롭게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韓國의 코데코(에너지社)와 인도네시아의 페르타미나간의 合作석유개발은 해외 석유개발 참여를 열망하는 모든 에너지수입 開發國들의 본보기이다.

## 에너지의 안정확보

이제 에너지의 정치적인 측면 또는 더 정확하게 말해서 에너지의 안정확보(energy security)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本人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한 모든 내용배후에는 이 에너지의 안정확보라는 문제가 깔려 있다. 이것은 또한 資源의 分布와 소비간의 커다란 불균형이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원유와 天然가스 확인매장량의 地政學的 分布와 소비에 관한 기초자료를 살펴보

자.

— 석유매장량의 2/3는 OPEC 國들에 편재하고 있다.

— 석유매장량의 56%는 中東에 편재하고 있다.

— 石油의 60%는 고작 9%의 매장량을 갖고 있는 OECD 國에서 소비되고 있다.

— 石油의 17%는 OPEC 이외의 開發國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 天然가스매장량의 1/3은 OPEC 國에 편재하고 있다.

— 天然가스매장량의 24%는 中東에, 41%는 共產圈에 편재하고 있다.

— 天然가스의 50%는 세계매장량의 17%만을 갖고 있는 OECD 國에서 소비되고 있다.

이들 資源의 매우 불균형한 분포배경을 고려할 때, 他地域의 정치적 혼란에서 기인되는 공급과동에 대한 經濟의 취약성은 무시될 수 없다. 이 때문에 OECD와 開發國에서 에너지절약노력을 계속하고 석유, 天然가스, 기타 연료와 같은 국내자원을 개발하려는 경제적 필요성은 정치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동시에 충분한 비축물량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유비축을 증강하려는 韓國의 노력은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 다른 開發國들이 본받아야 할 올바른 방향으로의 중요한 조치이다.

과거 한때 나타났던 오해와 대결의 인상은 사라진 것 같다. 역사의 교훈은 우리들에게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접근방법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다. 이 모든 것은 고무적인 징조들이다. 그러나 에너지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복잡하게 되고 있다. 우리는 매일 세계 에너지정세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불충분하고 불안정하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에너지정세변화, 상호작용,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여러 要因들간의 미묘한 상호작용을 파악하려는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本人의 견해로는 실용적이고 협조적인 자세를 반영하는 의도적인 상호교환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유익한 접근방법을 제시해 줄 것이다.

이러한 상호교환은 여러 레벨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비공식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거 수년간 이루어져 왔다. 1970년대

에 시도된 바 있던 협의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기구를 의식하고 이용하고 또 증강시키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유익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本人은 현재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에너지정세가 처하고 있는 연약한 기반에 유의하도록 당부하고자 한다.

요약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 소비국들은 에너지 특히 석유를 절약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소비국들은 석유소비를 극소화하기 위해 환경

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非石油 자원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開途國들은 국내석유자원과 기타 에너지源을 탐사·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모든 당사자들은 에너지정책문제를 다루는데 더욱 철저히 대비키 위해 정보와 경험의 교환을 통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과업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전략을 수립하면 다가올 1990년대에 에너지 문제의 고유한 특성인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다고 本人은 확신하고 있다. \*

□ 產油國動向 □

# 이란, 輕質油 1.11\$/B, 重質油 0.45\$/B 引上

## 지난 1월 18일 공식 발표

이란은 Iran Light原油를 1.11\$/B, Iran Heavy油를 0.45\$/B 인상한다고 이란 國營石油會社(NIOC)의 총재가 지난 1월 8일 발표했다. 그는 이번 인상이 작년말 OPEC총회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OPEC會員國들에게 통고했으며 新規價格은 1월 7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 輕質油가 사우디 輕質油보다 API는 약간 낮지만 유허분이 적기 때문에 사우디 輕質油보다 전통적으로 0.10~0.12\$/B 높게 평가되어 왔다고 주장하면서 이번의 대폭인상은 인근 產油國의 油價와 보조를 맞추어 國際油價를 안정시키려는 이란 政府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란은 최근 급격히 상승한 하르그 지역의 戰爭 追加保險料를 상쇄해 주기 위해 하르그섬에서 선적하는 原油에 대해 公式價格에서의 할인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그 割引幅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이란 原油 고객들은 이란이 公式油價 대폭 인상에 뒤이은 割引幅 통고를 곧 해주길 기다리고 있다. 대부분의 이란 原油고객들은 新價格下에서 협상을 시작해야할 입장인데, 일부 고객들은 이란·이라크 戰爭危險이 있는 하르그섬에서 선적하는 原油에 대한 가격을 公式價格引上分만큼 다시 割引幅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란 原油고객들은 최근 Honadoust 총재가 밝힌 「割引方式」은 작년에 이란이 적용해온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음주 이란과 협상을 시작할 예정인 한 고객은 “이란이 新規價格에 어떤 補充措置를 가하지 않을 경우 이란 原油를 구매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